

# 오직 하나뿐인 지구 살리기

「국립공원협회」 캠페인 (1)

## 우선 發想의 轉換을...

### ◎ 自然

自然界的 모든 要素를 人間生活의 便益性만으로 取捨選擇하려는 것이 現代생활이다. 심지어는 自然을 征服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이 西歐인들의 생각이었다.

그 결과 우리들은 人間 그자체가 自然의 한 要素라는 것을 잊어버린채 自然界的 온갖 현상과 사물들이 제각기 固有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해 온 것이다.

오늘날의 地球環境문제는 실로 이 逆코스에 의한 集績結果에 다름 아니다. 프레온 개스에 의한 오존 層 파괴는 日光浴도 즐길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아닌 酸性비는 우리들과 같은 地球構成員으로서의 植物을 급속하게 滅亡시켜가고 있다.

地球가 탄생한지 46億年. 최초의 生命體인 하나의 細胞가 탄생한지가 35억년전이라 하며 光合成의 되풀이로 水中 藻類가 발생한 것은 23억년뒤이며, 바다에 물고기가 나타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4억년전이라 한다. 여기에 비하면 인류의 역사는 불과 250~300萬年이며 近代技術과 近代生産方式이 도입된 것은 근 100년인데도 우리에게 오직 하나뿐인 이 地球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인류의 책임은 너무도 막중하다.

실사 온갖 妙案을 짜내어 人工的인 環境이 생겨날 지라도 궁극적으로 人間은 “自然”으로부터 離脫될 수가 없다. 自然의 죽임은 곧 우리 人間의 죽임이라는 冷嚴한 自覺없이 自然을 本來의 모습에 가깝게 돌이킬수도 없을 것이고 地球를 파멸에서 救하고 살

리는 人類的 課題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할 것이다.

### ◎ 住居

우리는 그동안 무분별한 都市化 추세에 휩쓸려 우리의 삶의 터전인 地球와 自然의 환경조건과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次元의 空間만들기에 급급해 온 것을 반성해야 한다.

빛물을 利用하는 것은 제쳐두고 地下로 되돌려주는 것조차도 아스팔트나 시멘트 콘크리트로 뒤덮여 버린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질소酸化物이나 二酸化炭素를 흡수함으로써 무더운 여름을 순환시켜주는 草木들마저도 멀리해 버렸다.

딱딱하고 메마른 콘크리트 建造物은 日射熱을 축적하여 더운 여름밤을 만드는데 한몫 거든다. 아파트團地의 경우는 쿨러가 뿜어내는 放熱과 자동차 排氣가스로 한층더 溫度가 상승되고 따라서 더욱더 쿨러가 필요하게 되는 惡循環을 되풀이 한다.

地形과 自然을 무시해 버리고 오직 空間利用의 極大化만을 追求한 都市계획 및 集團住宅건설에서 빚어진 反作用은 거꾸로 自然을 찾아 숨쉴 수 있는 空間을 찾아해매는 人間群像을 배출하는 奇現象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不自然스런 현상에서 탈피하여 自然의 활동과 作用을 슬기롭게 活用한 都市건설, 이른바 이코폴리스(eco-polis)의 건설이 試圖되고 있는 것을 우리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人間과 環境이 共生하는 都市-이코폴리스”는 生

態系 循環型 都市시스템의 形成을 指向한 것으로 1970年代 후반 西獨, 美國 등의 都市計劃 專門家들에 의해 싹트기 시작한 自然과 人間的의 調和를 도모하는 참신한 構想이 아닐 수 없다.

## ◎ 에너지

地球를 溫暖化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二酸化炭素의 증가다. 自動車를 움직여 가솔린을 1l 쓰면 약 600g의 二酸化炭素를 배출한다고 하며 주방에서 料理를 만들면서 개스를 1m<sup>3</sup> 사용하면 약 550g의 二酸化炭素를 배출한다고 한다.

火力發電으로 發電을 하는데도 全天候 野菜를 재배하는데도 석유나 천연개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들은 化石연료를 태우면서 快適(?) 생활을 영위하면서 地球를 溫暖化시켜온 것이다.

大氣中の 二酸化炭素의 濃度は 매년 1.4ppm꼴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상태로 温室效果개스가 계속 증대해가면, 西紀 2030년에는 産業革命이전의 二酸化炭素 濃度の 二배에 다다른다. 그 결과 지구전체의 平均溫度는 섭씨 1.5내지 3.5도가 上昇한다는 것이다. 또한 海面의 水位가 20내지 110cm 上昇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生態系와 農業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며 1980年代에 들어서면서 세계각지에 나타나고 있는 異常氣象 역시 地球溫暖化 현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니 우려되는 바 크다.

地球는 太陽에서 吸收하는 에너지와 宇宙에 放出하는 에너지의 밸런스로 溫度를 維持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면 이 얼마나 可恐할 일인가.

投入한 에너지의 40%도 채 有效하게 쓰지 못한다는 우리의 日常生活-에너지를 效率性 높게 사용하는 것, 生活스타일을 바꿔서 에너지를 되도록 節約하는 것, 나아가서는 太陽, 風力, 潮力, 水力, 地熱 등 公害를 誘發하지 않는 에너지를 더욱 經濟性 있게 開發하는 과제에 이르기까지 지금 病들어가는 地球는 우리들에게 에너지源의 轉換과 各種 廢熱의 再活用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 ◎ 물

地球에는 13억7000만km<sup>3</sup>의 물이 있다는 계산이다. 그중 97.2%가 바닷물이다. 2.2%가 氷河나 萬年雪이며 불과 0.63%가 시냇물, 湖水, 地下水 등 우리생활과 密接한 관계가 있는 물이다.

물은 水面과 地表에서 증발하여 蒸氣가 되어 구름을 만들고 다시금 비와 눈이 되어 地上에 물을 가져다 준다.

하늘에서 내린 물은 地表를 흐르는 물과 地下水가 되어 湧出되는 샘물로 地表에 나타나고 이런 물들은 江이나 湖池로 흘러들어 드디어 바다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같은 물의 循環속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사용하고 물과 친숙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을 너무 함부로 다루므로서 물자체의 淨化能力도 마비시켜버리는 막다른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오늘날 냇물과 바다를 汚染시키는 원인의 70%가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生活污水라 한다.

물의 사용량이 文化의 바로미터로 云謂되면서 물의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도처에 댐을 만드는 등 水源개발을 서둘러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森林을 파괴하여 森林이 갖는 保水능력을 감퇴시켜 왔으며 道路는 아스팔트, 시멘트로 포장되어 地下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妨害하고 있는 것이다.

물의 분별없는 사용도 止揚하여야 하겠거니와 再利用 등 지혜의 發動이 절실하며 지금까지 예사로 여겨온 常識的인 것들을 새로운 價値尺度에서 再点檢하는 새로운 生活哲學이 要求되는 것이다.

## ◎ 쓰레기

한때 高度成長의 물결을 타면서 “消費가 美德”이란 말이 流行語가 된 일이 있다. 지금도 넘치는 廣告宣傳은 消費를 부추기고 있으며 우리들 생활주변에는 浪費의 흔적이 도처에 넘실댄다. “豐富한 생활”은 그만큼 “豐富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생활이기도 한 것이다.

首都 서울의 쓰레기埋立地는 이제 限界에 부딪쳐

閉鎖하기에 이르렀고 새埋立地로 지정한 곳에는 인근住民의 集團 저항이 끊이지 않는다. 쓰레기戰爭이 전개되는 판국이라 할까...

제아무리 잘 처리를 한다해도 쓰레기를 계속 배출한다는 것은 海岸이나 野山을 계속 매워갈 수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時代는 지나갔으며 우리 인류는 자신이 버린 쓰레기에 包圍되어 꼼짝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였다해서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며 쓰레기를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만들지 않고, 사지 않고, 쓰지 않는 生活패턴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며 그리하여 만든 것은 가능한 수명이 길게 할 것, 리사이클, 再活用을 철저히 할 것 등 “消費美德인 社會”에서 “節約이 美德인 社會”로의 移行이 病든 地球를 치유하는 유일한 처방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 ◎ 有害物質

이 地球上에 人間이 만들어낸 化學物質의 수효는 400만이 넘으며 그중에서 현재 生産되고 있는 것은 7만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毒性이나 그 蓄積性을 상세히 실험한 것은 극히 소수라는 것이다.

有害物質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人體에 障害를 끼치는 것만을 가리키고 있지만 先進國에서는 爆發과 引火 등 위험성이 있는 것, 生態系에 害를 끼치는 것, 病原菌을 保有한 것 등도 포함된다.

有害物質 가운데서도 毒性이 강하고 生物體속에 蓄積하여 自然界에서 分解가 어려운 것은 人間에게 있어서나 地球環境에 있어서도 重大한 위험이 된다.

이와같은 化學物質에는 水銀, 鉛 등 重金屬과 化合物, DDT, PCB 등 有機鹽素化合物, 그리고 放射性 物質이 있다.

鉛같은 重金屬은 元素이기 때문에 아무리 化學的 變化와 加工이 더해져도 化合物의 形態가 달라질뿐 그 자체는 남기 때문에 重金屬을 生産하여 製品에 사용하면 그것은 그대로 環境에 축적해가는 것이다.

이같은 有害物質이 회수되지 않는한 결국은 植物連鎖에 의해 生物濃縮되어 人間の 體内に 侵入해오게 된다.

이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같은 物質을 生産하지 않아야 하고 輸入하지 말아야 하기에 이를 規制하는 法令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시에 消費者 連帶를 통한 不買 또는 排斥運動이 勢力化함으로써 有害物質이 처음부터 우리 消費生活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보호 세계民間운동 “점화”

『국제綠十字』(IGC) 출범... “인류未來확보” 선언

회장엔 고르바초프 구 소련대통령

범세계적인 환경보호운동을 비정부차원에서 전개할 국제녹십자(International Green Cross)가 20일 정식 창설됐다.

미하일고르바초프 IGC 초대회장(구 소련대통령),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前日本수상, 세오 헤이에 르달 노르웨이 인류학자 등 IGC 창설주역들은 이날 오후 日本 교토(京都)국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GC를 공식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에앞서 19일 열린 IGC 창설이사회는 「자연파괴 및 눈앞의 편지를 위해 우리들이 이미 행해버린 환경훼손을 시급히 복원, 모든 인류와 생물류의 안전한 장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인류와 환경의 건전한 관계를 다지기 위한 가치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IGC헌장을 채택했다.

이날 교토 총회에는 각국의 종교·정치·과학·환경·예술·기업·언론계·인사 등 5백여명이 참가했다. <동아일보>